건설산업이 신뢰받는 새해가 되기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비중에 걸맞게 건설산업의 틀도, 건설인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는 '신뢰'라는 덕목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첩경은 성실 시공과 기술 개발,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이다.

이상원
광진종합건설 대표이사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계미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 해에는 여느 해에 비해 굵직한 사건 사고가 많았었다. 참여정부의 출범, 대구 지하철 참사, 태풍 매미의 강습,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미 · 이라크 전쟁 등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격동의 한 해였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열풍을 빼놓을 수 없다. 연초부터 신행정수도의 유력한 후보지인 대전 지역에서부터 투기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더니 전국의 주요 도시로 예외 없이 확산되어 온 나라가 투기장이나 된 듯 들썩였다. 급기야 2 · 4 대전 지역 부동산 안정대책을 시작으로 10 · 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집값은 오히려 치솟기만 하였다. 갈 곳을 잃은 부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서울 지역의 집값은 1990 년대 10 년 동안의 상승률을 단 3년 만에 갈아치우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한 부동산 가격 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00 년에 비해 평균 80 %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남의 경우는 상승률이 130% 를 웃돌아 '강남 불패'라는 말을 실감케 하였다. 그 상승세가 이제 겨우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양산된 온갖 처방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처방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기준 시가 상향 조정, 실거래 양도세 부과,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후분양, 부동산 공개념 도입, 신규 주택 분양가격 규제 의원 입법 등으로 회복세에 있던 건설 경기가 장기간 냉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저점을 지나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 환경은 한 마디로 비관적이다. 건설 수주 물량이 10 %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민간 부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그 동안 경기를 주도해 온 주택 경기가 위축되고, 잠재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부문도 규제가 강화되어 불투명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신규 재건축 사업은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로, 또 기존의 재건축 단지는 안전 진단 강화, 후분양제, 일반 주거 지역 종별 세분화에 따른 명의 변경 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500 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로 확대되고, 저가심사제, 실적공사비적산제의 도입에 따른 예정 가격 하락,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 등으로 업계의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걸맞은 건설산업 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 년 말로 예정된 DDA/FTA 타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고, 원도급 업체의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일반 · 전문 걸설업체 간 겸업 제한과 영업 범위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일련의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건설 관련 제도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건설 현장의 인력난, 불안한 노사 관계, 기업의 설비 투자 심리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저가 투찰과 운(運)찰제가 되어버린 입찰제도 등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 이와 같은 척박한 여건에서 건설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에 맞는 경영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발빠른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의 외형 위주, 물량 위주, 성장 위주, 불투명한 경영에서 벗어나 수익 위주, 품질 위주, 내실 위주, 투명성 위주의 경영으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차별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각종 규제로 인한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이 필연적일 것을 감안하여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적정한 건설 수요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 대비 20% 대에 이르고, 생산액은 10 %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전 산업 분야의 8% 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 산업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걸맞게 건설산업의 틀도 건설인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는 '신뢰'라는 덕목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실 시공과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은 건설산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최선의 방법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길이다.

다가올 새해 2004 년 갑신년은 건설산업이 신뢰받고 건설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